



김제농협 직원, 보이스포싱 예방경찰서장 감사장 받아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웅) 북부지점 A직원이 친착한 대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고객 자산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김제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지난 8월 29일, 한 고객이 투자 명목의 전화를 받고 예금을 해지해 송금하려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응대하던 A 직원은 평소와 다른 출금 사유와 고객이 제시한 문자·카카오톡 링크의 신빙성 부족에 이상을 감지했다. 그는 즉시 고객을 차분히 설득해 송금을 중단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연락은 실제 기관과 무관한 사기 행위였음이 드러났으며, 고객은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송금을 요구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신속한 대응이 없었다면 추가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김제경찰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대응이 보이스포싱 피해를 막은 모범 사례”라며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동충둥 발전협 등, 취약계층에 후원물품 전달

남원시 동충둥 관계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동 발전협의회(회장 임창민)와 유·엘립산업(대표 박종열)에서 관내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 발전협의회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kg(55만원 상당)을 유·엘립산업(대표 박종열)에서 백미 10kg 14포(50만원 상당)를 기탁, 이와 같은 기부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과 더불어, 이웃사랑의 소중한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다.

김차남 동충둥장은 동 발전협의회와 엘립산업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마음을 모아 취약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복나눔자원봉사단, 명절 황태 콩나물국밥 대접

행복나눔자원봉사단(단장 홍미연, 이하 봉사단)이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지난 30일 전주시 노송동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 4층에서 아코디언, 색소폰 연주와 함께 황태 콩나물국밥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식사 대접에는 노송동 지역 주민 어르신 약 60여 분이 함께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전주시의회 최용철의원이 깜짝 방문해 어르신들과 덕담을 나누었다. 점심식사 봉사에는 봉사단과 함께 양지재 가족지원센터, 동지재가족지원센터 책임자들이 일손을 도왔다.

행복나눔봉사단 홍미연 단장은 “지난 9년간 지역 어르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제는 정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행복 나눔 봉사단은 노송동에 터를 잡고 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어르신 식사 대접, 이웃 어르신 함께 말벗하기 등 함께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김제시지부 등, 유유·계란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한국낙농육우협회 김제시지부와 대한소단체협의회 김제시지부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달 30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따뜻한 나눔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김제시지부는 720만원 상당의 국산 우유(200ml)를, 대한소단체협의회 김제시지부는 계란(1,000판(600만원 상당))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기탁된 우유(200ml)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추천된 독거노인 60여 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년동안 주회 2팩씩 생활관디사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심재원 한국낙농육우협회 김제시지부장은 “우리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웅비 대한소단체협의회 김제시지부장은 “지역사회와 즐거운 명절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경제 발전 공로 인정 표창’

우범기 전주시장·유희태 완주군수, 전주상의 창립 90주년 기념식서 수상

전주상공회의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들을 기렸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29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90년간 전북 상공업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기념식에 모인 지역 상공인과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한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전담매니저 제도 운영 △해외 판로 개척 지원 확대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 추진 등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 정책에 반영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전주시를 지속 가능한 성장 거점 도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글로벌 수소경제 중심도시 육성 △호남권 물류 중심도시 조성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상공인 지원 확대 △문화·융합 신개념 산업단지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섰다. 기업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그의 공로가 인정돼 표창으로 이어졌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의 수상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이 빚어낸 상징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상공회의소가 지자체와 함께 손잡고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추석맞이 사랑나눔활동… 지역에 1600만원 기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도내 기업들과 손잡고 추석을 앞둔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진흥원은 지난달 30일 전주시 호성보육원과 (사)전주시장애인부모회를 방문해 1,600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전달하며 2025년 추석맞이 사랑나눔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진흥원 임직원의 기부 바자회 수익금과 함께, 도내 9개 식품기업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참여 기업은 △(주)쌍둥 △(유)메밀꽃피는향이리 △만산영애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발린 △맑은상회 F&B △(주)관조아 농업회사법인 △힘찬바루 △농업회사법인(주)디자인농부 △지리산저렴농조합법인 등이다. 이들이 준비한 물품과 성금은 지역 복지시설의 아동과 장애인 가족에게 전달돼 풍성한 명절을 선물했다.

바이오진흥원은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임직원과 기업이 함께 2,000만 원 규모의 기부를 진행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



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은미 원장은 “이번 사랑나눔활동은 기관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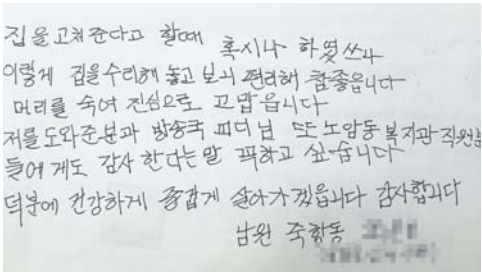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취약계층 위해 ‘누구도 외롭지 않은 추석 만들기’ 행사

국민연금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북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공단은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전북 내 5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후원금과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누구도 외롭지 않은 추석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태현 이사장을 비롯해 류지영 감사, 장재혁 기획이사, 정태규 연금이사, 이여규 복지이사 등 공단 임원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를 보여주었다.

후원금 1,000만 원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했으며,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시설 아동들에게 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 장애인지원실과 노후준비지원실 직원들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장애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안내하고, 복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남원사회복지관, 독거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남원사회복지관은 제7회 최 할머니의 쓸쓸한 봄날(2025년 4월 19일 방영)편을 통해 후원금 20,118,000원을 지원받아 독거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지난달 2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 어르신은 남원시 죽향동에 60년대 지어진 집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집에는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은 물론 화장실조차 없어 도움이 절실했다.

이에 남원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은 외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고립된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관은 사업 완료 후에 입주식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남원시·죽향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돌봄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수협,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송광복)은 지난달 30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사람의 헌열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꾸준한 사회 공헌활동과 나눔 실천을 통해 부안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안수협은 지역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게 됐다.

기탁식에 참여한 송광복 조합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돕는 것 또한 조합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며 “이번 기탁이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키우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이사장은 “부안수협의 장학금 기탁은 지역 청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노암동, 행복밥상 보양식 나눔 사업 성료

남원시 노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세계적 이웃사랑 행복밥상 3탄 - 가을맞이 보양식 지원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과 따뜻한 명절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의체 위원들과 동 직원들이 흠뻑아르신, 장애인 등 30가구를 방문해 추어탕과 두부로 준비된 보양식 세트를 직접 전달했다.

한 어르신은 “추석을 앞두고 몸도 마음도 허전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니 명절을 함께하는 기분이 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한우협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무주군 한우협회 회원들이 1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무주군수 황인홍)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제29회 무주년빛불축제 기간에 진행한 ‘한우 판매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홍관수 무주군 한우협회 회장은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주년빛불축제에서 무주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알릴 수 있어 보람 있었다”라며 “귀하게 일하고 얻은 수익인 만큼 지역 인재들을 위해 쓰자는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장학금으로 전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농협 진안군지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명절 나눔

NE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변성섭)는 1일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최종진)과 함께 추석명절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물품과 쌀कु수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안군은 농업 중심의 지역으로 계절에 따라 외국인 많은 근로자들이 농촌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고 있다.

농협 진안군지부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끼, 파스, 장갑 등 필수 안전물품과 함께 쌀कु수 200세트를 전달했다.

변성섭 지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진안군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이다”고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